

‘나의 도시’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홍콩문학 속의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 ‘페이옹’(菲傭)

김혜준

dodami@pnu.edu | 부산대학교

국문 초록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수는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 홍콩 인구 7,020,400명의 3.64%에 달하는 266,778명(인도네시아 48.7%, 필리핀 48.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페이옹’(菲傭)이라 불리는 이들 외인 가정부에 대해 홍콩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홍콩소설은 중국계 가정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외인 가정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라는 그녀들의 신분 때문일 것이다. 홍콩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외인 가정부를

* 이 글은 필자의 기존 작업에서 일부 사항을 발전시킨 것으로, 비록 주제와 서술 각도가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인용과 표현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겹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필자의 기존 작업에 대해서는 김혜준, 「1997년 후 홍콩소설에 나타난 주부와 가정부의 모습 — 가사노동/돌봄노동과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어학』 제33집, 부산, 대한중국학회, 2009.8, 355-378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이 글의 주요 내용을 “香港：都市想像與文化記憶”國際學術研討會, 香港中文大學中國語言及文學系 / 香港教育學院中國文學文化研究中心 / 美國哈佛大學東亞系 聯合主辦, 香港, 2010년12월17日-18日에서 중국어로 발표할 바 있다.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홍콩 시민 내지 홍콩 거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홍콩 자체의 수용 능력의 한계, 저임금 노동력 이용이라는 요소에서만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점차 강화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 이데올로기의 경향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 가운데 홍콩작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홍콩소설 역시 그러한 이미지의 재생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면 「6동 20층 E6880**(2)」(陳麗娟, 2000), 「무애기」(黃碧雲, 2001), 「툰문의 에밀리」(也斯, 2002) 등의 작가들은 외인 가정부를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은 결과적으로 외인 가정부를 사물이나 다름없고, 불성실하고, 성적 대상이 될 뿐인 존재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내가 이는 애육의 정사」(王貽興, 2002)의 작가 역시 화자의 성장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외인 가정부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작품에서는 외인 가정부인 로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인격체라는 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홍콩소설에서 외인 가정부는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이다.

‘나의 도시’ 속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간주되는 외인 가정부를 가시화하고, 그녀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아주어야 한다. 이로써 그녀들이 ‘나의 도시’ 속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외인 가정부 역시 삶의 애환과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홍콩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홍콩문학, 페이옹(菲傭), 외국인 기사노동자, 사물화, 성적 대상화, 재민족주의화

1. 휴일의 홍콩

일요일 홍콩 시내를 돌아보면 중완(中環)의 황후상 광장(皇后像廣場) 등 일부 공공장소에 수많은 동남아시아계 여성들이 차도나 인도 등의 맨 바닥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 네일 케어를 받는 사람, 무언가 물품을 주고 받거나 사고 파는 사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사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 등 그녀들의 행동이 꼭 같지는 않지만 거의 온 종일 그곳에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이런 장면은 홍콩 사람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일 것이고, 일시적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은 장면일 것이다. 도대체 그녀들은 누구일까?

홍콩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대규모의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담당할 사람이 부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홍콩 내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하위 계층 여성들의 제조업 진출에 이어서 중상위 계층 여성들의 금융업 및 기타 서비스업 진출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그것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그 해결책은 외국인 가사노동자(外籍家庭傭工)를 초치하여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었다. 조리·세탁·청소·아이 돌보기 등 기본적인 가사를 담당하는 이들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거의 모두가 여성으로, 초기부터 최근까지 대부분 필리핀 출신이었던 데다가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 출신이 반수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필리핀 가정부(菲律賓女傭)라는 말에서 비롯된 ‘페이용’(菲傭, 이하 그 의미와 어감을 종합하여 ‘외인 가정부’라고 옮김)으로 통칭된다.

일요일 홍콩 시내의 특정 공공장소에 대규모로 운집해있는 동남아시아계 여성들은 바로 이들 외인 가정부들이다. 그녀들은 법률로 정해

져 있는 바에 따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대개 일요일이 되면 고용주 가족만의 시간을 지켜주는 한편 통상 극히 협소한 고용주 가정의 집을 벗어나서 일시적으로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바로 이런 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2.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홍콩인들에게는 대단히 낮익은, 그리고 방문객에게는 대단히 낯선 이들 외인 가정부에 대해 홍콩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우선 「6동 20층 E6880**(2)」(陳麗娟, 2000)의 첫부분을 보자.

‘××산장이라는 이 아파트촌에는 산도 동물도 없었다. 그저 손목 굵기 정도의 나무 몇 그루에, 수많은 아파트 동과 수많은 버스와 수많은 외인 가정부가 있을 뿐이었다.¹⁾

홍콩에서 외인 가정부의 수는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말에는 홍콩 인구 7,020,400 명의 3.64%에 달하는 266,778명(인도네시아 48.7%, 필리핀 48.5%)에 이르게 된다.²⁾ 그러나 이 인용문에서처럼 그 수가 아파트촌의 건물이나 그곳을 오가는 버스처럼 많다는 비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 만큼 홍콩에는 수많은 외인 가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간단한 묘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그것은 어쩌면 홍콩 사람들이 암암리에 그

1) 陳麗娟, 「6座20樓E6880**(2)」, 『香港文學』 第191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 2000年 11月, 28.

2) 香港特區政府, 『香港年報 2009』, 112 및 341, <http://www.yearbook.gov.hk/>(2010년 11월 25일 검색)

녀들을 아파트나 버스와 동격의 사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그녀들을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건물이나 버스와 마찬가지로 사물로서 간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온통 똑같이 생긴 아파트촌에서 자기 집을 잘못 찾아간 한 남자의 행적을 통해 현대적 대도시의 비인간적인 복제성과 반복성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예리한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문스러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실은 외인 가정부에 대한 홍콩 사회의 비교적 일반화되어 있는 시각과 관계가 있다. 보모를 비롯해서 집안 내 허드렛일을 하는 여성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다. 이는 보통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가능한 일로, 여성 가사노동자를 둔다는 것은 지배층 여성의 특권이였다. 예를 들면 『모성애를 판 사람』(夏易, 1957)에 보면 “린씨 부인은 그녀의 아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그래도 모든 시간을 아들에게 쏟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작도 하고 싶었고, 사람도 만나고 싶었고, 얘기도 나누고 싶었고, 심지어는 책도 보고 싶었다. …… 린씨 부인은 마침내 아차이를 찾아냈다.”³⁾라는 부분이 나온다. 그것은 물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맡겨진 가사노동을 저임금의 다른 여성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가부장적 종속 체제 하에서 남성의 억압을 받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억압 구조에 새로운 형태가 추가되었다. 여성 노동의 상대적인 임금 격차 때문에 여성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 찾기』(辛其氏, 1985)에서 30년 전 자신을 돌보아주던 가정부를 찾아나선 화자는 1950년대 후반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여성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3) 夏易, 「出賣母愛的人」, 劉以鬯 主編, 『香港短篇小說百年精華』(上), 香港: 三聯書店, 2006.9, 169-170.

찌지에는 …… 남들의 고용살이를 했다. 모친은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녀를 불러다가 나도 보살피고 빨래나 설거지도 하게 했다. 그 당시 나는 부모와 함께 조그만 방에서 살았는데, 대략 사는 게 아주 그럭저럭이어서 같은 층의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처럼 찌지에를 전일제로 쓸 수는 없었다.⁴⁾

즉 어떤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사회노동을 하게 되면, 그 여성의 가사노동을 저임금의 다른 여성 노동자가 대신하는 방식이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값싼 노동력이 관건이 되는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와 홍콩의 비약적 경제 발전이 맞물려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의 여성 가사노동자 고용이 마침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 즉 외인 가정부의 고용이란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홍콩 사회가 홍콩 자체 및 인근 지역에서 인력을 조달할 때와는 다소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과거 홍콩소설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보모나 여성 가사노동자를 모두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서 묘사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녀들을 근면하고 선량한 사람으로서 표현했다. 『모성애를 판 사람』(夏易, 1957)에서 주인집 아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아차이도 그렇고, 『까오성로에 온 한 여자(來高升路的一個女人)』(徐許, 1965)에서 주변 인물들의 호감을 받다가 결국 주인 남자와 살게 되는 아시앙도 그렇고, 『사람 찾기』(辛其氏, 1985)에서 화자를 조카처럼 사랑해준 구양푹(廣東) 순더(順德) 출신의 찌지에도 그렇다.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여성 가사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외인 가정부에 대한 묘사는 그와 다른 상황을 보인다. 다음은 『무애기』(黃碧雲, 2001)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

4) 辛其氏, 「索驥」, 劉以鬯 主編, 『香港短篇小說百年精華』(下), 香港: 三聯書店, 2006.9, 132.

잉잉을 낳은 후 추추는 거의 1년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외인 가정부를 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잉잉은 여전히 추추와 함께 잤다. 외인 가정부가 잠을 탐하느라 아이를 배 굶리고 춥게 만들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⁵⁾

이 인용문에서 외인 가정부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않는 불성실한 여성이자, 무능력하고 임금에 값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외인 가정부가 못미덥거나 불성실한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당연히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외인 가정부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인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대체로 가사노동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혹시 여성이 사회노동을 하는 경우 특히 그런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부모 또는 가정부를 고용해야 된다.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은 모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정성을 다하는 안전한 보살핌이 되고, 반면에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임금노동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미숙련 노동일 뿐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모성애를 판 사람』(夏易, 1957)에 보면 “아차이는 린씨 부인보다 더 잘 보살폈고”, “그녀는 그녀의 모든 충심과 모성애를 아가에게 쏟았다”⁶⁾고 묘사된다. 즉 부모가 무조건 어머니보다 못하다는 신화는 사실상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고용주 여성이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동일한 여성인 부모를 억압하고 왜곡시키는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5) 黃碧雲, 『無愛紀』, 『無愛紀』, 臺北: 大田出版有限公司, 2001, 27.

6) 夏易, 『出賣母愛的人』, 170 및 173.

이런 면에서 黃碧雲 소설의 여주인공인 추추의 위 인용문과 같은 행동에도 바로 그런 왜곡된 신화 내지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 추추의 이런 행동은 외인 가정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이나 그녀들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홍콩에서 외인 가정부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외인 가정부는 대졸도 상당수일 만큼 상당히 높은 학력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가 지날수록 외인 가정부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⁷⁾ 홍콩 사회 자체의 노동력 결여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자로서 그녀들의 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도 페미니스트로 평가되는 黃碧雲이 이런 식의 이해를 보여준다는 것은 홍콩에서 외인 가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어느 정도 시사해준다. 즉 현실적으로 외인 가정부는 일부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과는 상관없이 홍콩에서 외인 가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분히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 점은 「툰문의 에밀리」(也斯, 2002)의 다음과 같은 곳에서도 나타난다.

1997 이후 모두들 발견하게 되었다. 홍콩에 남은 외국 남자들은 매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으며, 입는 것도 신통찮았다. 거리에서 보게 되는 외국 남자

7) 외인 가정부의 수는 수적인 면에서든 비율적인 면에서든 간에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말 홍콩 인구의 3.2%인 223,200명이었던 것이, 4년 만인 2009년 말에는 홍콩 인구의 3.64%인 266,778명으로 늘었다. 公務員事務局法定語文事務部, 『香港 2005』(香港: 公務員事務局法定語文事務部, 2005), 121 및 香港特區政府, 『香港年報 2009』, 112.

들은 모두가 지저분하고 제멋대로였다. 반바지를 꿰차고 세븐일레븐에서 맥주 몇 캔 사가지고는 늘상 외인 가정부와 노닥거리거나 했다.⁸⁾

이 소설은 주체적이고 개방적이며 씩씩한 튼문(屯門) 출신의 젊은 여성들을 묘사함으로써, 홍콩 사람의 다양한 정체성을 탐구하는 한편 홍콩의 지역성을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홍콩섬(香港島)과 짐사쵸이(尖沙咀)를 넘어서서 신계(新界) 지역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소설에서 비록 어떤 칼럼니스트의 견해를 인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외인 가정부는 수준 낮은 외국 남자들이 지분거리는 대상으로, 즉 남성의 성적 상상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홍콩에서 실제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거나 또는 작가 也斯가 외인 가정부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也斯처럼 개방적인 시야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격의 소중함을 충분히 긍정하고 있는 작가조차도 홍콩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외인 가정부에 대해 그와 같은 이미지를 재생산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적어도 위 몇 가지 예를 볼 때 홍콩소설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외인 가정부의 이미지는 아파트나 버스와 동격의 사물일 뿐이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않는 불성실한 직업인일 뿐이며, 수준 낮은 외국 남자들이 지분거리는 성적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그보다 더욱 심각하다. 그것은 외인 가정부가 홍콩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우선 홍콩소설에서 그녀들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 학자인 나의 독서량이 적은지는 몰라도 이 논문과 관련해서 내가 읽어본 근 2백 편의 단편소설과 제법 여러 편의

8) 也斯, 「愛美麗在屯門」, 『后殖民食物与愛情』, 香港: 牛津出版社, 2009, 116.

중장편소설 중에서, 위에서 이미 인용한 세 군대를 제외한다면, 외인 가정부가 나오는 경우는 「내가 아는 애욕의 정사」(王貽興, 2002)가 유일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볼 자. 일단 그에 앞서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외인 가정부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3. 고통받는 사람들

「내가 아는 애욕의 정사」(王貽興, 2002)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당시 자신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차 이성에 대해 눈을 떠가는 과정을 묘사한 일종의 성장 소설이다. 이러한 어린 시절 화자의 성장 과정에서 로사라는 이름의 외인 가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화자가 로사와 처음 접촉하게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80년대에 성장한 나는 …… 매일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 외인 가정부가 차려준 점심을 먹고, 그녀의 감독과 보살핌 속에서 숙제와 복습을 하고 티비를 봤다. …… 누군가가 전적으로 나의 일상생활을 돌보게 되자 부모는 더욱 자연스럽게 밤늦게까지 연장 근무와 접대를 하게 되었고, 나는 그들을 볼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다. …… 로사는 …… 매일 아침 나를 깨워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서서 …… 아침나절 학교버스를 기다렸고, 하학할 때면 학교 버스에서 나를 마중했고, …… 시험을 잘못 쳐서 부모에게 욕을 먹거나 매를 맞으면 몰래 내 방에 들어와 나를 위로해주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가까웠다. 그녀는 나의 것이었고, 나는 그녀의 것이었다.⁹⁾

9) 王貽興, 「我所知道的愛慾情事」, 黃子平 許子東 編, 『香港短篇小說選 2002-2003』, 香港: 三聯書店, 2006.4, 110-111. 이하 이 작품을 인용할 경우 쪽수만 표기한다.

여기서 보다시피 가사노동자로서 외인 가정부는 단순히 조리·세탁·청소·아이 돌보기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고용주 가정의 자녀 교육까지 일정 부분 또는 거의 전적으로 떠맡고 있다.

사실 외인 가정부는 홍콩 여성의 사회노동으로 인해 홍콩 가정에서 발생한 가사노동의 공백을 메꾸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홍콩 여성이 사회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자체로 홍콩의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육아·아동 교육·노인 돌봄 등에 종사함으로써 홍콩의 노동재생산에 기여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외인 가정부 개개인으로 보자면 2년 또는 4년이라는 단기계약자로서 체류했지만, 외인 가정부라는 집단 전체로 보자면 홍콩 사회의 체제와 문화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으며, 따라서 지난 수 십년간 홍콩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외인 가정부는 법률적으로 일정 정도 고용 조건이 보장된다고는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홍콩의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는 외국인 임금노동자일 뿐이다. 이 점에서 보자면 외인 가정부가 홍콩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든지 간에 중국적으로는 종래의 여성 가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 가정내에서의 신분이 불안정하며, 홍콩 사회에서 홍콩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간주될 뿐이라는 것을 뜻한다.

과거든 현재든 간에 여성 가사노동자는 가부장제 체제하에서 고용주 가정의 주부가 하는 일을 거의 대부분 대신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주부와 긴장 관계에 있기가 쉽다. 이에 따라 고용된 집의 식구들로부터, 특히 같은 여성인 주부로부터 지배/피지배의 관계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모성애를 판 사람』(夏易, 1957)에서 보모인 아차이가 고용주 가정의 아이와 유사 모자지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린씨 부인이 그 동안 가족처럼 대해오던 아차이를 어느날 갑자기 해고해버리는 것이 그렇다. 사실 여성 가사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보모는 고용주 가정이 비록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이지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가족 내에서 위치가 모호하며, 궁극적으로는 피고용인일 뿐이므로 만일 주부의 위치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내가 아는 애육의 정사」(王貽興, 2002)에서 외인 가정부인 로사가 해고되는 상황인데, 그 구체적 진행 과정은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앞의 소설과 별 차이가 없다.

흔치 않게 가족 세 사람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로사가 서랍 속에서 기친 달러를 훔쳤다고 핑계대면서 엄마에게 그녀를 내보내라고 말했다. …… 아버지는 …… 아무 말 없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 그날 밤 엄마는 어떻게 로사를 달래야할지 몰라서 그저 나지막한 소리로 그녀의 이름만 불러댔다. 로사, 로사, 로사. (121)

이 인용문은 화자의 어머니가 외인 가정부인 로사를 달래는 데서 나타나듯이 가정부를 가족처럼 대하기는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 피고용인일 뿐이라는 것, 가정부의 표면적인 해고 권한은 주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들의 말 한 마디와 남편의 묵시적 동의에 그날 즉시 수년 동안 고용했던 가정부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남성의 지배하에 있는 여성이 같은 여성과 다시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10) 외인 가정부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노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강제하고 확대하며 영속화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홍콩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 친지도 없는 외인 가정부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외인 가정부를 노동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으로도 통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처럼’ 신화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의 Rhacel Salazar Parrenas 교수는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런 관점은 가사노동자를 평생 주인에 예측된 하인처럼 바라보려는 봉건적 개념에 뿌리박혀 있다. 둘째, 이런

그런데 이 소설에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은 따로 있다. 위 인용문 부분에서만 보면 로사의 해고 이유는 그녀가 돈을 훔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로사가 돈을 훔치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인가? 소설 속에서 진행되는 진짜 사정은 이런 것이다.

어느 날 …… 일찍 집에 오게 되었다. …… 문을 열자 아버지가 벌거벗은 로사의 몸을 타고앉아 있었다. …… 저녁에 로사가 노크를 하며 밥 먹으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나더러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 로사는 나와 티비 사이에 꿰어앉아 울면서 머리를 들고는, 조금 전처럼 불분명한 구양똥말로 주절거렸다. …… 나중 그녀는 나의 몸에 올라타더니 옷을 벗겼다. ……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여자 경험이었다. (119-120)

여기서 보다시피 외인 가정부인 로사는 화자의 아버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이 사실이 화자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어떻게든 이를 막기 위해 화자의 은밀한 성적 욕망까지 채워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감한 상황에 빠진 아들이 거짓말을 꾸며내고, 이런 거짓말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묵인하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머니에 의해 해고되고 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로사의 해고는, 고용주 가정의 남자들의 성폭행과 암묵적 공모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의 조종을 받는 같은 여성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로사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까? 왜 고용주 가정

개념은 가사노동자를 임금노동자 신분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면서 피고용인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 셋째, 고용주들은 이것을 무급노동을 뽑아내기 위한 가족 이데올로기로 활용할 수 있다. …… 끝으로 이는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가린다.”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문현아 옮김, 『세계화의 하인들-여성, 이주, 가사노동』, 여이연, 2009.04, 285-286.

의 남자 주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왜 아마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을 그런 행위를 그냥 받아들였던 것일까? 왜 화자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이 수 년이나 조카처럼 돌보아 오던 화자의 성적 상상을 충족시켜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 왜 고용주 가정의 여자 주인으로부터 돈을 훔쳤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을까? 이 소설에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전혀 그럴 의도도 필요도 없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떤 외인 가정부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인 가정부에 대한 홍콩의 고용법이라든가 외인 가정부가 홍콩까지 오게 되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홍콩의 법률에 따르면, 외인 가정부의 계약기간은 2년이고 갱신이 가능하며,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고용주는 가정부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만일 외인 가정부가 의도적으로 고용주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행위가 부당하거나, 사취 또는 불충실한 행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직무에 소홀한 경우 통지 내지 통지대체금 없이 고용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¹¹⁾ 다시 말해서 금전적 사취라든가 성적 부정의 행위는 가장 강력한 해고 요인이 되는 것이다. 즉, 이 소설에서 로사와 화자 아버지와의 관계는 틀림없이 화자 아버지의 권력적 지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로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로사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로사가 해고당함과 동시에 강제 출국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로사는 화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며, 소설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행동했음에도 결국은 금전

11) 香港特別行政區政府勞工處, 「聘用外籍家庭傭工僱主須知」, [http://www.labour.gov.hk/tc/public/pdf/wcp/PointToNotesForEmployersOnEmployment\(FDH\).pdf](http://www.labour.gov.hk/tc/public/pdf/wcp/PointToNotesForEmployersOnEmployment(FDH).pdf) 및 香港特別行政區政府入境事務處, 「外國聘用家庭傭工指南」, [http://www.immd.gov.hk/html/ID\(E\)969.htm](http://www.immd.gov.hk/html/ID(E)969.htm) (2010년 11월 25일 검색)

절취를 이유로 해고당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강제 출국이란 단순히 로사가 고향 필리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외인 가정부는 출신국과 홍콩 양쪽의 소개소를 통해서 홍콩에 오게 되는데, 비록 고용주가 외인 가정부의 임금 외에도 항공료, 식비, 의료비, 교육비를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 강제 출국은 현재와 미래의 수입이라든가 홍콩에 오기 위해 그녀가 투자했던 자금과 노력은 물론이고, 그러한 모든 경제적 손실로부터 초래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겪게 될 현실적인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이태리 등 이른바 A급지가 아닌 홍콩으로 오게 되는 외인 가정부는, 이민 알선 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유추해볼 때, 원래부터 전자의 지역으로 가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층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¹²⁾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해고된다는 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일단 강제 출국당하고 나면 홍콩 법률상 다시는 홍콩에 재취업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의 경우 필리핀 남부의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심지어 옷돈을 주고 학력까지 위조하여 간신히 홍콩에 온 로사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까지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소설 속에서 어린 화자가 차츰 성장하면서 품게 되는 성적 동경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목격한 뒤의 분노 등을 잘 알고 있는 로사가 ‘울면서’ ‘애원하며’ 어린 화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런 파멸을 막아보고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래 보았자 이 소설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이 결국 남성들의 조종을 받는 화자의 어머니에게 해고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12) Rhacel Salazar Parrenas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도착지는 비용과 자격이라는 제한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계급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세계화의 하인들-여성, 이주, 가사노동』, 75-76 참고.

4. 왜곡되는 사람들

이 소설에서 보여준 것처럼 고용주 가정의 남성들이 여성 가사노동자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인 집에서 일하는 여성 가사노동자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권위를 가질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권위와 협조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24시간 근무, 한정된 공간, 가부장적 환경,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해 고용주 가정의 남성들로부터 성적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 만일 여성 가사노동자가 외국인 여성노동자라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는 현지 여성 가사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등 고용주 가정의 남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더욱 적으며, 그녀의 출신 국가 역시 국가적 경제 이익을 고려해서 대체로 자국민 보호에 소홀하면서 성적 학대를 포함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을 예외적인 사례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³⁾

문제는 이런 사건에 대해 홍콩작가(또는 더 나아가서 홍콩독자)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까오성로에 온 한 여자』(徐許, 1965)에 보면, 소설의 내용으로 보아 중국계 가정부인 아시안과 주인 남자 사이에도 아마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

13) 2010년 11월 24일 영국 Daily Mail Online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정부로 취업했던 인도네시아 여성 Sumiati(23)의 사례를 보도했는데, 고용주는 가위로 입술을 잘라내고, 다리미로 등을 지지고, 가운뎃 손가락을 분질러버리고, 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다리를 때린 혐의로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해외취업자권인옹호단체인 Migrant Care의 Wahyu Susilo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며 “그들이 겪는 노예같은 생활, 구타, 성적 학대, 심지어는 살해의 사례를 계속해서 듣게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왜? 해외취업자들이 해마다 75억 달러를 벌어들이니까”라고 말했다.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332279/Sumiat-is-injuries-Shocking-photos-Indonesian-maid-abused-Saudi-employers.html> (2010년 11월 25일 검색)

설에서 주인 남자는 여러 여자를 맞이하는 인물이다. 본 부인과 사이에 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댄서 출신의 여자를 맞이하며, 이에 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 버린다. 그 후 이 둘째 부인마저 필리핀 화교 애인을 쫓아가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는 다시 가정부였던 아시앙을 맞이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거하게 된 후에도 아직 아시앙의 신분은 처인지 첩인지 또는 아무 것도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로 볼 때 소설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주인 남자와 아시앙 사이에 먼저 육체적인 관계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아시앙은 그저 건강하고 똑똑하며 항상심이 강한 젊은 여성으로 그려질 뿐 전혀 성적이거나 유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같이 살게 된 주인 남자를 설득하여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게를 열어주기까지 하는 순수하고 인정 많고 의리 있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반면에 「내가 아는 애욕의 정사」(王貽興, 2002)에 보면, 외인 가정부인 로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건 자체가 권력 관계에 따른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 역시 남성들의 조종에 의한 같은 여성인 부인으로부터 해고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술회(즉작가의 서술)가 상당히 모호하며 심지어는 일정 정도 왜곡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한 가지는 사건이 마치 외인 가정부인 로사의 성적 유혹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묘사된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바를 종합해보면 로사는 그다지 성적인 외모도 아니고 유혹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눈을 떠가는 성장기 아이인 화자의 시각을 빌어서 그녀에게 유혹적이라는 이미지가 부여된다. 또 틀림없이 성폭행에서 비롯되었을 아버지와의 성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입막음을 위해 어린 소년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암암리에 마치 로사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인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제법 길기는 하지만 다음 구절들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로사는 단발의 여자로, 입술은 두껍고 피부는 새카맣으며, 얼굴에는 반흔이 많았고 눈은 아주 컸다. …… 나는 …… 그녀의 젖꼭을 훑쳐보았다. …… 그녀의 옷깃 사이의 브래지어를 보았다. 일요일마다 나는 …… 중완으로 로사를 뒤따라갔다. …… 그녀가 땅딸막한 필리핀 남자와 껴안은 채 어느 낡은 빌딩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 …… 문을 열자 아버지가 벌거벗은 로사의 몸을 타고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로사는 식탁 위에 올라앉아 …… 토막난 구양똥말로 의미가 불분명한 말들을 내지르고 있었다. …… 로사의 두 다리는 높이 쳐들려 있었으며, 구겨진 속옷이 발목에 걸려 있었고, 무릎은 유방을 짓누르고 있었다. …… 나는 간신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 나는 조금 전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거대하고 모호한 양물, 로사의 의미가 불분명한 주절거림, …… 저녁에 로사가 노크를 하며 밥 먹으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나더러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 로사는 나와 티비 사이에 꿰어앉아 울면서 머리를 들고는, 조금 전처럼 불분명한 구양똥말로 주절거렸다. …… 나중 그녀는 나의 몸에 올라타더니 옷을 벗겼다. …… 나는 처음으로 고통과 마비 상태에서 그녀와 했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여자 경험이었다. …… 로사의 끈적하고 거무죽죽한 음기가 탐욕스럽게 하룻밤에 나와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였다. 대체 그녀는 내심으로 누가 더 그녀를 경련이 일만큼 무아지경의 쾌감을 준다고 느낄까? …… 나는 그녀의 애원과 부르짖음을 상상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시종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117-121)

이처럼 로사는 실제로는 고용주 가정의 부자로부터 성적 폭행을 당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녀가 오히려 그들 부자를 유혹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나중 그녀는 나의 몸에 올라타더니 옷을 벗겼다. …… 나는 처음으로 고통과 마비 상태에서 그녀와 했다.”라고 한 것은, 마치 화자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지만 로사가 그렇게 유도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소설 속에서 로사가 실제로는 총명하고 의지가 굳센 여성인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런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부정적이고 성적인 이미지만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 소설 화자의 회상에 따르면,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성장한 고졸 학력의 여성이지만 독학으로 ‘괜찮은 영어’와 ‘대화 가능한 구양똥말’을 구사한다. 즉, 외국어 습득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로사는 그만큼 지적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여성인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런 일들은 가볍게 지나가면서 반면에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그녀가 학력을 속이고 푼돈을 떼먹으며 농땡이를 치는 인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운다. 더구나 바로 위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그녀가 계속해서 ‘의미가 불분명한 주절거림’을 되풀이했다는 식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녀의 이성적인 이미지는 약화시키고 성적인 이미지만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¹⁴⁾ 즉, 그녀로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화자에게 매달리지만, 화자 또는 독자에게는 그녀가 자신의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같은 존재로 비춰지며, 심지어는 성적인 특성만 부각되는 동물적인 존재처럼 비춰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언급한 두 소설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

14) 소설 속에서 로사는 괜찮은 영어를 구사하고 구양똥말이 향상된 이후 화자와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숙제와 외워쓰기를 검사해주기까지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소설에서는 화자에게 호소할 때조차도 “조금 전처럼 불분명한 구양똥말로 주절거렸다”라고 묘사함으로써, 그녀와 화자 아버지와의 장면과 겹쳐지게 만들고 동시에 이제 막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 수준처럼 만들고, 이를 통해 결국 그녀에게 성적 동물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것은 단순히 두 소설의 작가가 서로 다른 인물을 다룬 데서 오는 우연한 차이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전자 때문이 아니라 후자 때문이다. 그것은 앞에서 잠시 거론한 것처럼, 홍콩의 소설이 중국계 가정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외인 가정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사람 찾기』(辛其氏, 1985)와 『내가 아는 애육의 정사』(王貽興, 2002)는 둘 다 화자가 어린 시절의 가정부와 얽힌 이야기를 실마리로 하여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는 소설이다. 양자 모두 자기 자신의 성장 과정이 중심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현저한 차이 중 하나는, 전자가 가정부를 화자와 같은 차원의 사고와 감정을 가진 주체적인 인물로 간주하면서 그녀의 긍정적이고 올곧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음에 비해서, 후자는 외인 가정부를 오로지 사물화, 객체화하면서 외인 가정부의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면을 위의 경우와 함께 놓고 보면 비교적 분명해진다. 즉, 홍콩소설에서 묘사되는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로서의 외인 가정부는 중국계 가정부와 대비되면서 그녀들에게 상당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5. 거부되는 사람들

홍콩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외인 가정부에 대한 이런 식의 묘사는 아마도 외국인 여성 가사노동자라는 그녀들의 신분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그들에게 수용 사회의 거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만일 이주노동자들이 거주민과 동등한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수용

사회의 거주민들이 한정된 경제적 자원과 공공 서비스를 그들과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전지구화 및 탈민족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때 수그러지는가 싶었던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이데올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홍콩 사회 역시 외인 가정부에 대한 경계 심리가 발동하면서 그 일환으로 그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언론 매체에서 외인 가정부는 버릇없다, 과잉금이다, 도움보다는 방해가 된다, 감사할줄 모른다, 불평이 많다, 요구사항이 많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라든가,¹⁵⁾ 아이들에게 소홀하다, 남자를 유혹한다, 심지어 부업으로 창녀를 한다라는¹⁶⁾ 식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홍콩작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홍콩소설 역시 그러한 이미지의 재생산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외인 가정부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데는 홍콩만의 특수한 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츠버그대학 인류학과 Nicole Constable 교수에 따르면, 불만족스러운 외인 가정부에 대비되는 중국계 가정부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는 과거 1940년대 주로 홍콩 인근 구양푹 순더의 실크공장 여공 출신 가정부인 ‘쏘헤이’(疏起)의 고용주 가정에 대한 충직성과 독신 생활에 대한 향수어린 낭만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¹⁷⁾ 만일 이런 신화가 진실이라고 한다면(그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즉 외인 가정부보다는 중국계 가정부

15) Constable, Nicole, *Maid to Order in Hong Kong: fictions of Migrant Workers*(2nd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37-41 참고.

16) Chang, Kimberly A. and Ling, L.H.M., “Globalization and its intimate other: Filipina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Marianne H. Marchand and Anne Sisson Runyan(eds.), *Gender and Global Restructuring: Sightings, Sites and Resistances*, Taylor & Francis, 2000, 27-43 참고.

17) Constable, Nicole, *Maid to Order in Hong Kong: fictions of Migrant Workers*(2nd ed.), 44-62 참고.

가 더 낫다고 한다면, 왜 홍콩인들은 중국계 가정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물론 중국계 가정부가 점점 더 고임금을 요구하게 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예컨대 그 동안 홍콩과 중국 대륙 사이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점, 중국 대륙인의 유입이 홍콩 시민권의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홍콩이 일찍부터 외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나마 비교적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던 점, 필리핀 역시 홍콩과 마찬가지로 공용어로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도 외인 가정부 쪽으로 기울어지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홍콩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여성 기사노동자를 고용했던 것이며 계속해서 그런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홍콩의 특수한 상황이란 이런 식의 실리적인 부분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홍콩 거주민은 오늘날 인구의 95%를 중국계가 차지하는데, 애초 대부분 영국 식민지 통치 하에서 차례로 홍콩 인근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주자들로 구성되기 시작했고, 대략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홍콩 거주민들의 범주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중반 이래 홍콩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홍콩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1970년대에 들어서자, 이들은 적극적으로 홍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홍콩인으로서의 발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마침내 홍콩인의 ‘나의 도시’¹⁸⁾가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이러한 ‘나

18) ‘나의 도시’라는 말은 1975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홍콩의 『쾌보(快報)』에 연재되었던 西西의 소설 『나의 도시(我城)』에서 유래한다. 이 작품은 동화적 상상과 과장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홍콩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홍콩인의 자각 선언과 같은 역할을 했다. 상세한 것은 시시 지음, 김혜준 옮김, 『나의 도시』(지식출판사는 지식출판사, 2011.2), 7-24 해설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 도시'는 1982년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의 중국 방문과 1984년 중영 양국의 『홍콩문제에 관한 연합 성명』의 발표 및 1997년 홍콩반환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점점 더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홍콩인의 정체성 강화와 더불어 그 부수작용으로 홍콩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배제적으로 행동하는 경향 역시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1997년 이래 수년 간 지속된 홍콩인 내지 자녀의 거류권 문제에서 그것은 폭발적으로 표현되었다.¹⁹⁾ 그러므로 외인 가정부에 대한 홍콩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 양산은 이와 같은 홍콩인의 정치적 재민족주의화에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홍콩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외인 가정부를 홍콩 시민 내지 홍콩 거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홍콩 자체의 수용 능력의 한계, 저임금 노동력 이용이라는 요소에서만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점차 강화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 이데올로기의 경향 등이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다. 홍콩인 자신이 경험하고 표출해온 것과는 여러 모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홍콩인들은 그들 자신이 이주를 통해 차례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뒤늦게 이주해온 사람들은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과의 차이 내지는 그들로부터 받는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 때문에 『술꾼(酒徒)』(劉以鬯, 1963)과 같은 작품에서는, 뒤늦게 홍콩에 도착한 대륙 출신의 화자가 낯선 사회 환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오로지 술에 의지하며 거의 자포자기의 상황에 빠져들기도 한다. 또 홍콩인들은 한편으로 영국 식민자로부터 억압받는 피식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 『홍콩 삼부작(香港三部曲)』(施叔青, 1993-1997)에서 기녀로 납치되어 홍콩으로 온 똥구안(東莞)

19) 이 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적확하고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장정아, 『‘홍콩인’ 정체성의 정치-반환 후 본토자녀의 거류권 분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3.

출신의 후앙더윈에서부터 그녀의 증손녀 후앙디에니앙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의 일가족이 겪는 파란만장한 삶은 바로 그러한 고통과 분투의 농축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세기 후반 이래 북미나 호주를 포함해서 세계 각지로 이주한 홍콩인들은 소수자 내지 외국인 이주자로서의 불평등과 정신적 방황을 겪기도 했다. 예컨대 「연못가에 기절해있던 한 인디안」(吳煦斌, 1985)에서는, 중국계인 화자가 주류사회에 대한 자신과 인디안의 처지를 두고 “그들은 견고한 벽으로 우리를 바깥에 막아세운다. 그가 받은 것은 문명의 격리이고, 내가 받는 것은 문화의 차별이다. 우리는 다같이 이방인이다.”²⁰⁾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의 산물이다.

다른 한편으로 근래에 들어 홍콩소설에서는 홍콩의 포용적인 다문화주의 내지는 문화 혼종주의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깡또우 차찬팅(金都茶餐廳)」(陳冠中, 2003)에는, 홍콩의 다양하고 잡종적인 음식과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차찬팅’이라는 대중음식점 및 내력이 복잡하거나 불분명한 홍콩의 보통 인물들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後殖民食物與愛情)』(也斯, 2009)에서는 홍콩 특유의 오리지널한 듯하면서도 틈새적인 동서 불분의 온갖 음식이라든가 세계 각지를 누비는 개방적인 홍콩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홍콩 사회의 특징이자 이미 전통이 되어버린 혼합, 혼종, 혼용의 홍콩문화의 상태라든가 세계인으로서의 홍콩인의 모습과 세계 도시로서의 홍콩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홍콩과 홍콩인의 포용적인 특성을 극력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에서와 살펴본 것과 같이 홍콩소설에서 나타나는 외인 가정부에 대한 현재까지의 태도는 확실히 패러독스일 수밖에 없으며, 재고해볼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20) 吳煦斌, 「暈到在水池旁邊的一個印第安人」, 劉以鬯 主編, 『香港短篇小說百年精華』(下), 香港: 三聯書店, 2006.9, 120.

6. 존재와 부존재

홍콩에서 외인 가정부는 법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수용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외인 가정부는 자신들의 권익 보호와 정서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의존할 수 있는 다양한 외인 가정부 네트워크를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휴일에 대규모로 그녀들이 출현하게 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금전 절약의 목적이라든가 비좁은 홍콩의 주거 조건 때문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홍콩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과 이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가정 내에서 노동함으로써 겪게 되는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우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 가정부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다. 외인 가정부가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은, 그들의 피부색이라든가 옷차림과 같은 외형적 이미지와 더불어, 그들 자신에게든 홍콩인에게든 그 자체로서 그녀들이 임시거주자로서 홍콩사회의 비성원임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그녀들이 모이는 장소는 표면적으로는 홍콩사회에서 공공의 장소이지만, 실제로는 관리 통제가 수월한 특정한 낱짜에 특정한 지역에서 모인다는 특성상 공공의 장소라기 보다는 고립의 장소이다. 달리 말하자면, 외인 가정부는 홍콩사회의 비성원으로 서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시는 출입국관리처·경찰처·노동처 등과 같은 홍콩 정부 기관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실상 홍콩 주민 전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 방식 역시 여러 가지 법률적 행정적 제도와 고용주를 포함한 홍콩인의 시선에 의한 직접적인 감시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언론 기사, 홍콩 주민의 이야기,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 대단히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보면, 심지어 외인 가정부에 대한 감시는 외인 가정부들 자신 또는 외인 가정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나 출신국의 정부기관에 의해서도 이

루어진다. 예컨대 그러한 각급 단체들이 발행하는 언론 매체나 주최하는 활동을 통해 시도되는 다양한 종류의 정신 교육과 의무감 부여는 그 자체로 자기 감시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외인 가정부는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홍콩에 와서 저임금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까지도 그 대가로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홍콩 사회는 인구의 절대 다수를 중국계가 점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정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지의 많은 곳이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이면적으로는 주류문화로의 동화를 전제로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아마도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홍콩의 인종적 구성과 문화적 경험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들 자신이 애초 이주자 신분이었다고 피식민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인 가정부 그녀들을 홍콩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아마도 외인 가정부는 그녀들을 차별하는 홍콩 사회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출신지 국가를 영원한 고향으로 간주하면서 홍콩은 단지 임시 체류지에 불과하다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기제는 홍콩 사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상 그녀들이 홍콩 사회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마치 과거에 수많은 중국계 홍콩인들이, 마음 속에 자신만의 고향을 간직하면서 홍콩 사회에 대해 영원히 ‘나그네’(過客)로 지냈던 것처럼,²¹⁾ 그리고 그런 점이 홍콩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오히려 지장을

21) 예컨대 작가 司馬長風(1920~1980)은 1949년에 홍콩에 이주한 이래 죽을 때까지 시종일관 향수와 상상을 통해 고향 또는 고국이라는 신화를 추구했다. 陳國球, 「詩意與唯情的政治－司馬長風文學史論述的追求與幻滅」, 『感傷的旅程：在香港讀文學』(臺北：學生書局, 2003), 95-169 참조.

주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일정 수준까지 외인 가정부를 홍콩 사회에 포용하는 것은 홍콩 사회 쪽에서나 외인 가정부 쪽에서나 모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물론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외인 가정부에게 홍콩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처럼 외인 가정부를 배제하고 경계해야 하는 존재로 대하지 않고, 설령 그녀들 개개인의 거주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녀들 전체로서는 홍콩의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는 존재로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홍콩작가들이 술선수범하여 그들의 소설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외인 가정부를 다루는 것은 또 어떨까? 아마도 『6동 20층 E6880**(2)』(陳麗娟, 2000), 『무애기』(黃碧雲, 2001), 『툄문의 에밀리』(也斯, 2002) 등의 작가들은 외인 가정부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은 결과적으로 외인 가정부를 사물이나 다름없고, 불성실하고, 성적 대상이 될 뿐인 존재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어쩌면 『내가 아는 애육의 정사』(王貽興, 2002)의 작가는 화자의 성장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외인 가정부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홍콩인인 화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해서 작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외인 가정부인 로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인격체라는 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나 심지어 소설의 조연인 화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조차 인간으로서 그려지고 있음과는 달리, 이 소설에서 외인 가정부는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면서도 마치 동물이나 사물처럼 그려진다. 그러니 홍콩소설에서 외인 가정부는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이다.

‘나의 도시’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존재하면서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간주되는 외인 가정부를 가시화하고, 그녀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아주어야 한다. 그녀들이 ‘나의 도시’ 속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어느 한 외국인 연구자의

감상적 인도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인 가정부 역시 삶의 애환과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적 전지구화의 상황 속에서 외지로 이주한 수 많은 홍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들 역시 가족 별거의 고통, 외국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 이질적 환경과 열악한 노동 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으며,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지적 능력, 도덕적 추구, 업무상의 책임감 등이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홍콩인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홍콩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김혜준, 「1997년 후 홍콩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 어머니, 딸, 부인을 중심으로」, 『중국어 문논총』 제39집(중국어문연구회, 2008.12).
- 김혜준, 「1997년 후 홍콩소설에 나타난 주부와 가정부의 모습- 가사노동 / 돌봄노동과 여성 문체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33집(부산: 대한중국학회, 2009.8).
- 윤형숙, 「지구화, 이주여성, 가족재생산과 홍콩인의 정체성」, 『중국현대문학』 제33호(중국현대문학학회, 2005.6).
- 장정아, 『‘홍콩인’ 정체성의 정치- 반환 후 본토자녀의 거류권 분쟁을 중심으로』(서울대 박사논문, 2003).
- 시시 지음, 김혜준 옮김, 『나의 도시』(지식을만드는지식출판사, 2011.2).
- 파레나스, 라셀 살라자르, 문현아 옮김,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여이연, 2009.04).
- Constable, Nicole, *Maid to Order in Hong Kong: fictions of Migrant Workers (2nd ed.)*(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 Chang, Kimberly A. and Ling, L.H.M., “Globalization and its intimate other: Filipina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Marianne H. Marchand and Anne Sisson Runyan(eds.), *Gender and Global Restructuring: Sightings, Sites and Resistances*, (Taylor & Francis, 2000).
- 公務員事務局法定語文事務部, 『香港 2005』(香港: 公務員事務局法定語文事務部, 2005).
- 香港特區政府, 『香港年報 2009』, 112 및 341, <http://www.yearbook.gov.hk/>(2010년 11월 25일 검색)
- 香港特別行政區政府勞工處, 「聘用外籍家庭傭工僱主須知」,
[http://www.labour.gov.hk/tc/public/pdf/wcp/PointToNotesForEmployersOnEmployment\(FDH\).pdf](http://www.labour.gov.hk/tc/public/pdf/wcp/PointToNotesForEmployersOnEmployment(FDH).pdf) (2010년 11월 25일 검색)
- 香港特別行政區政府入境事務處, 「外國聘用家庭傭工指南」,
[http://www.immd.gov.hk/chtml/ID\(E\)969.htm](http://www.immd.gov.hk/chtml/ID(E)969.htm) (2010년 11월 25일 검색)
- Daily Mail Reporter, “Shocking photos of Indonesian maid after Saudi employer hacked off her lips”, *Daily Mail Online*,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332279/Sumiat-is-injuries-Shocking-photos-Indonesian-maid-abused-Saudi-employers.html> (2010년 11월 25일 검색)

Forgotten People in ‘My City’

‘Feiyong’(菲傭), Foreign Female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Literature

Kim, Hye-Joon(Pusan National University)
dodami@pnu.edu

Over the past 30 years, the number of foreign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increased steadily. By the end of 2009, there were totally 266,778 foreign domestic workers (48.7% from Indonesia, 48.5% from Philippine), which is nearly 3.64% of Hong Kong population, 7,020,400. These foreign domestic workers are generally known as ‘Feiyong’(菲傭, Filipino maids). How are these kind of characters portrayed in Hong Kong’s fictions?

Almost all Hong Kong fictions portrayed Chinese domestic workers positively, whereas ‘Feiyong’ were described negatively. It is probably due to their identities as foreign female domestic workers. There are lots of difficulties for Hong Kong society and cultural institutions to accept ‘Feiyong’ as real Hong Kong residents. On the one hand, there are limits in the absorption capacity of Hong Kong itself, and cheap labor force has to be used in Hong Kong. On the other hand, the tendency of nationalist ideology and identity also gradually put bounds to it. Hong Kong writers are undeliberately giving rise to the image-making of these characters.

In fictions like “E6880**(2) of Building 6, 20th Floor”(Chan, Lai-kuen 2000), “A Record Without Love”(Wong, Bik Wan, 2001), “Emily in Tuen Mun”(Leung, Pingkwan, 2002), the writers would have never meant to belittle ‘Feiyong’. However, their fictions depicted ‘Feiyong’ as objects, dishonest people, or sexual objects. In “Passionate Love Affair I Know”(Ong, Yi Hing, 2002), a growth novel, perhaps the author was trying to express his sympathy towards the ‘Feiyong’. However, in the story, the fact that Rosa, the ‘Feiyong’, is a human being was seldom shown. Therefore, in Hong Kong fictions, ‘Feiyong’ are beings that do exist yet are not clearly present.

'Feiyong' who are considered invisible in 'My City' should become visible and should be given back voice they lost. Thus, like all the rest of the people, they should be able to live among in 'My City'. This is because 'Feiyong', foreign domestic workers, too are beings that has joys and sorrows of life, as well as human dignity. Moreover, this is one of the problems that not only Hong Kong is facing, but also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Key words: Hong Kong literature, Feiyong(Filipino maids), foreign domestic workers, renationalization, reification, sexual objectification

투고접수 : 2011.1.13
심사완료 : 2011.2.10
계재결정 : 2011.2.15